

5/3/20

설교 제목: 택함받은 은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1 장 10-32 절

(창 11: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 11: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셸라를 낳았고

(창 11:13) 셸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4) 셸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창 11: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창 11: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절관주** 창 12:3

(창 11: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절관주** 창 20:9, 창 26:10

(창 11: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창 11: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창 11: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창 11: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자손

(창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 11: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창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 11: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죄가 만연하여 부패해진 세상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부부와 그의 세 아들 부부만 남겨두고는 대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 버리셨습니다.

노아 부부와 그의 세 아들 부부를 구원하여 남겨 두었던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롭게 건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렇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래로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을 통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바벨탑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악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세우려고 하셨으나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던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고 죄의 세력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와 말을 혼잡케 하여 무리를 흠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 대한 징벌이자 장차 이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게 하기 위한 은혜의 조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죄에 정복된 인간에게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으니 바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그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필 셈의 후손 중에서 불러내신 것은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사건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음을 일깨워주고자 모세로 하여금 셈의 후손의 족보를 꺼내게 하십니다.

모세는 셈의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어 족보를 기록합니다.

셈에게는 아르박삿 이외에도 엘람, 앓수르, 룯, 아람 등 네 아들이 더 있었지만 아브라함 계열인 아르박삿 후손들의 족보만 언급합니다.

(창 10: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룯과 아람이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 족보입니다.

(창 11: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 11: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

하나님께서서는 셈의 다섯 아들 중 아르박삿을 택하여,

아르박삿의 여러 자녀 중 셀라를 택하여,

셀라의 여러 자녀 중 에벨을 택하여,

에벨의 여러 자녀 중 벨렉을 택하여,

벨렉의 여러 자녀 중 르우를 택하여,

르우의 여러 자녀 중 스룩을 택하여,

스룩의 여러 자녀 중 나홀을 택하여,

나홀의 여러 자녀 중 데라를 택하여,

데라의 세 자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중 아브람을 택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참고로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업적? 사회적인 지위? 재산?

아무리 찾아 보아도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특별한 업적이 있었다거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거나 재산이 많았다거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사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족보가 아브람의 직계 가족에 이르자 좀처리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창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 11: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창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이브람은 사래와 결혼을 하였으나 자식이 없었으며 나홀은 하란의 딸인 조카 밀가와 결혼하였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래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 11: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왜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래 손자 롯을 데리고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아들 나홀 가족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 알수 없습니다.

본절에는 데라 아브람 사래 롯이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일이 아버지 데라의 주도 하에 행해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스테반은 사도행전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 7:2)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행 7:3)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행 7: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런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데라는 다른 아들 나홀이 있었음에도 그의 가족을 남겨둔 채 아브람과 사래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목적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도중에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무를 깎아 우상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살았던 데라가 하란에 와보니 이곳도 갈대아 우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곳인지라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일을 생업으로 계속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갈 길은 험해 보이고 하란에서의 삶은 녹록해 보여 주저 앓은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람은 아내와 조카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을 밟은 사람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 조카 롯 그리고 함께 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람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이들로 하여금 아브람을 따르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아브람을 따랐고 그 결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에 아브람에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래는 아브람의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래도 사람들로 부터 멸시와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그런 연유로 아브람이 떠나자고 했을 때 두말없이 따라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어 후일 그녀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롯은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 작은 아버지인 아브람 밑에서 살고 있던 처지였던지라 좋던 싫던 아브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일찍 죽어 아버지 없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세우신 작은 아버지 아브람에게 붙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큰 복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기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 아브람이 가는대로 어디든지 따라 가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이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까지도 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일지라도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그런 본토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아브람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운 아브람에 붙어 있던 그들은 결국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직 간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아브람에 붙어있음으로 복을 받는 이들 모두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큰 업적을 이루어낸 잘난 자들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이거나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미처 당신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예정은 말도 안되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자가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이면 죽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구원해 주고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중에서 몇 명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중에 내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그저 황송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시간 제 머리 속에 문득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떠오릅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나찌로부터 유대인 1100 여명을 구해낸 실존 인물 독일인 실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행적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가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찌들이 이유도 없이 유대인들의 사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잡아다 아우슈비츠로 데려가 가스 탱크에 집어 넣고 학살했습니다.

마침 유대인이 소유했던 공장을 인수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이같은 유대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적어도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만큼은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1100여명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독일 장교에게 돈을 주어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빼내 살립니다.

그들은 죽을 수 밖에 없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쉰들러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쉰들러의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후에 쉰들러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을때 쉰들러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신이 살린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오히려 쉰들러를 위로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그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저 그에게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쉰들러에게 왜 더 많은 사람을 리스트에 넣어 살리지 않았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잘나지도 못하고 아무 공로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으며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